전국 경찰 지휘관 초청 특강

꾸준히 혁신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

정부가 토론과 회의, 잘 발달된 인터넷 등을 활용해 한국사회를 한번 변화시켜보고 업그레이드시켜보자는 게 혁신주체에 관한 저의 구상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주체를 만들자는 것인데 무슨 문화혁명이 있고 편가르기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문화혁명이 가능한 나라입니까.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건의서, 제안서를 내는 등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혁신주체들이 한 관서뿐 아니라 관서간, 청(廳)간 네크워크를 이뤄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도 바꾸는 등 정부내 횡적 연대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바뀌면 혁신팀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과거엔 교수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 자르는 것을 제1로 삼지도 않고 작은 정부도 하지 않겠습니다.

(북핵문제 관련)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핵 문제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관계는 앞으로도 중요하며 때때로 갈등과 협력의 관계가 반복되며 흘러갈 것이나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문제 관련) 지금 금융은 안정된 것 같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이맘때면 경기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겠습니다.